

# ‘세계 랭킹 1위 탈환’ 고진영, 3년연속 LPGA상금왕 도전

미국의 넬리 코다 따라 붙으며 2위 기록중 박인비 뛰어 넘는 한국 선수 최초의 기록

LPGA투어 역사에서 로레나 오초아 이후 13년만의 3년 연속 상금왕 타이틀 대기록

LPGA 투어 시즌 4승째를 올리며 세계 1위 탈환에 성공한 고진영(26)이 내친김에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 박세리와 박인비도 달성하지 못한 3년 연속 상금왕에 도전한다.

고진영은 지난 24일 끝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연장 승부 끝에 임희정(22)을 누르고 역전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인 LPGA 통산 200승의 대기록을 달성함과 동시에 많은 기록들을 갈아치웠다.

이 가운데 3년 연속 상금왕 달성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고진영은 이번 대회 우승 상금 30만달러를 획득하면서 올 시즌 195만6415달러(22억9100만원)로 미국의 넬리 코다(197만4657달러)를 바짝 따라 붙으며 2위를 기록 중이다.

시즌 최종전이자 왕중왕전 성격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우승상금 150만달러)을 포함해 2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고진영은 충분히 상금왕 달성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고진영이 최고 상금이 걸린 왕중왕전 성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고진영.

격의 최종전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넬리 코다와 순위 경쟁에서 이긴다면 상금왕 달성이 유력하다.

올 시즌에도 상금왕을 차지하면 2019년(277만3894달러) 2020년(166만7925달러)에 이어 3년 연속 상금왕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박인비(2012~2013)를 뛰어 넘는 한국 선수 최초의 기록이자, LPGA투어 역사에서 로레나 오초아(2006~2008)이후

13년 만의 3년 연속 상금왕 타이틀의 대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LPGA 25승에 빛나는 박세리는 안니카 소렌스탐, 캐리 웹 등 당대의 쟁쟁한 선수들과 경쟁을 펼치면서 상금왕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한국 선수로는 박인비에 이어 신지애(2009년), 최나연(2010년), 박성현(2017년)이 한 차례씩 상금왕을 차지했다.

LPGA 역대 최고 상금왕은 8차례 상금왕을 달성한 안니카 소렌스탐과 1960~70년대 활약한 케이지 위드워스이다. 위드워스는 불멸의 대기록인 통산 88승의 역대 최다승 기록을 갖고 있다.

고진영은 또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도 이번 대회 우승으로 30점을 보태면서 176점으로 161점의 넬리 코다를 앞질렀다.

올렉스 올해의 선수상은 LPGA 공식 경기 톱 10 선수에게만 포인트가 주어진다.

한 해에 가장 많은 톱10 성적을 낸 선수에게 주는 보너스 10만달러도 확정 지었다.

고진영은 올해 11개 대회에서 톱 10안에 들면서 대니얼 강, 리다아고, 패티 타바타나킵(9개)을 제치며

최소한 공동 1위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 200번째 한국인 우승의 주인공이 된 고진영은 통산 11번째 우승으로 신지애(2013년·11승)와 함께 한국 선수 최다 우승자 공동 4위로 뛰어 올랐다.

1승만 더 거두면 김세영(12승)과 공동 3위를 기록함과 동시에 한국 여자골프의 ‘신화’ 박세리(25승), 박인비(21승)의 최다승 기록 도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올 시즌 4승으로 넬리 코다(3승)를 제치고 올해 다승왕 경쟁

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고진영은 또 이번 BMW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2라운드와 4라운드에서 8언더파 64타를 기록하며 코스 레코드를 2번이나 기록했다. 이는 자신이 기록한 공식 경기 생애 최저 타수와 타이 기록이다.

고진영은 또 이번 경기에서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연장전 승부에 돌입했고, 연장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기록을 동시에 남겼다.

또한 LPGA 올 시즌 5번째로 마지막날 경기에서 4타 이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역전 우승에 성공한 선수가 됐다.

고진영은 아울러 14라운드 연속 60대 타수 기록이 무산됐지만 다시 3라운드 연속 60대 타수 기록을 쌓아나가고 있다.



스카이텔레비/뉴시스

고진영은 또 평균 최저타수 기록에도 다가갔다. 이번 대회를 마치면서 평균 타수 69.186까지 줄이며 넬리 코다(69.074)를 바짝 추격하며 2위를 달리고 있다.

## “윤정희 방치” 보도한 ‘PD수첩’에 백건우, 11억원 손해 청구

“악의적 편집, 사실 확인하지 않아… 명예 훼손”

“연주료 관리한 윤정희 동생이 21억원 무단 인출”

피아니스트 백건우씨가 아내 배우 윤정희(77·본명 손미자)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1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씨는 지난 25일 직접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PD수첩 측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거짓”이라며 “이로 인해 명예가 크게 훼손

됐고 정신적 고통도 많아 백건우 10억원, 백진희 1억원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신청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딸 백진희가 후견인 권한을 남용해 윤씨와 동생들의 만남을 막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PD수첩은 9월 ‘사라진 배우, 성년후견’의 두 얼굴’편을 방영하면서, 백씨와 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윤씨를 2년 전 강제로 프랑스 파리로 이동시켜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씨의 여동생 손모씨가 윤씨를 서울에서 잘 돌보고 있었는데 백씨가 갑자기 파리로 데려갔단 내용이었다. 방송에서 윤씨의 넷째 동생 손병욱씨는 “2년 넘게 윤정희를 보지 못했다”며 “백건우에게 연락해도 누나 윤정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송 이후 백씨는 당시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리고 이날 또다시 백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손병욱은 윤정희의 집을 와봤다. 다른 동생도 백진희의 집도 와봐서 알고 있었으므로 손병욱의 말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PD수첩은 윤정희 형제자매만의 말만 들은 상태에서 그것이 사실인 양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사실을 간과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씨 가족과 왜 연락이 단절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백씨는 “윤정희 첫째 여동생(손미애)은 1980년부터 나의 한국 연주료를 관리해왔다. 그러나 잔고내역을 허위로 알렸다”며 “총 21억4359만1154원을 인출한 것을 2019년 3월 28일 확인했

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액 인출 문제로 비밀번호를 바꾼 후 동생과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지난 2019년 5월 윤정희가 파리로 간 뒤 윤정희의 형제자매 측과 후견인 선임과 방식을 두고 법정 분쟁을 벌였으며 지난해 11월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윤정희의 형제자매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란에 그가 백건우와 딸로부터 방치된 채 홀로 투병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

백씨는 오는 28일 서울 서초구 원물결아트센터에서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자세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두경 기자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주최 제38회 영평상 시상식이 열린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로영화인상 수상자인 배우 윤정희(오른쪽)와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함께 입장하고 있다.

# shinil

## 특허받은

# 신일 듀얼 자동칫솔

양방향 자동 회전 <DUPONT> 듀폰사 최고급 칫솔모

신일전자 공식스토어 바로가기